

# 팀 학습을 통한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팀원의 창업의지, 다양성 및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중석 (강남대학교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팀 학습을 통한 창업교육이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학기 국내 K대학의 벤처창업 자율전공에 개설된 창업교과목 중에서 문제해결 과제중심의 팀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4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창업의지, 팀 구성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 간의 영향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 각각이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고 아울러 팀 학습의 유효성이 이러한 독립변수와 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창업의지 또는 팀 다양성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창업의지가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팀 학습의 유효성이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팀 학습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조력자 지원활동의 유의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부분매개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팀 학습 유효성을 경유하여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가 매우 유의미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팀 학습 창업교육에 있어서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개인의 창업의지 역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팀 학습 유효성을 매개로 창업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창업의지에 부합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내·외부 전문가 또는 기업가의 교육 참여와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팀 학습에 있어서 팀원의 구성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하여 편성하고, 조력자는 팀 학습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 및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업의지, 팀 다양성, 팀 학습 유효성, 창업교육 만족도

## 1. 서론

창업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대학이 체계적으로 창업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있다. 세계 최초로 기업가정신 학부전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abson 대학(Babson College)은 졸업생의 99%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7%는 창업한다(중소기업청, 2013). 우리나라에서도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21년간 창업강좌 개설대학이 57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이우

진·황보윤, 2015). 창업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창업효능감을 높이고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Lanero et al., 2011; Newbold & Erwin, 2014; 조준희·김찬중, 2015; 이현경·이일환, 2016). 또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효과적이며 실천적인 창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Solomon & May, 2014; Ibrahim et al., 2017)을 하기 때문에 훗날 창업을 통한 경제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창업교육은 신성장동력의 발굴이나 일자리 창출에 앞서서 대학생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및 노력, 직업에 종사하고자하는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경정희·성창수, 2016). 창업교육이 이처럼 양적으로 확대되고 창업의지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 단독저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cjs@kangnam.ac.kr.

투고일: 2017-07-12 · 수정일:

· 게재확정일: 2017-08-01

서 실천적인 창업교육 방법론에 대한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희·김정호(2013)는 창업기회포착 등과 같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론교육은 물론,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창업 의사결정력에 영향을 주도록 교육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박재환·최민정(2016)도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현경·이일환(2016)의 연구에서도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습형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창업교육 방법론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이우진·황보은, 2015).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방법론의 하나로써 팀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협동학습은 유연한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팀원 간 창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사, 실습 및 발표 과정을 통하여 계획성·논리성·동태적 분석력을 높일 수 있다(최중석·성상현, 2016). 또한 대학생들은 팀 기반 학습을 통하여 다양성수용도와 학습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실재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강명희 외, 2016년). 미국의 경우는 팀 구성을 통한 벤처창업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벤처 팀의 창업은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Ochani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학습을 통한 창업교육 방법이 실제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전체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팀 학습의 유효성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팀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과 팀 학습의 유효성 및 교육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며 아울러 팀 학습을 통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팀 활동 촉진요소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개인의 창의성, 창업효능감, 창업태도 및 역량, 창업교육의 지원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 혹은 창업성과의 선행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에 있어서 팀 구성원의 다양성은 팀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멘토링 혹은 퍼실리테이터 등과 같은 창업 지원요소도 중요하게 권장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창업의지, 팀 구성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수들이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전체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인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

고자한다.

#### 2.1.1 개인의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선호, 성향 또는 경향을 말한다.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창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창업강좌, 창업특강 및 캠프, 창업 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 다양한 창업교육의 참여가 대학생의 창업역량과 기업가적 태도를 높이고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용태, 2017). 이재석·이상명(2015)은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가 높아졌음을 연구하였으며 혁신성과 진취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반면,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가적 가정환경이 존재할 때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대학의 학부생, 동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기업가와 그렇지 않은 동창 간에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창업성취기대 및 목표지향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연구하였다(Newbold & Erwin, 2014).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국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모두 높아졌음을 연구하였다(Koe, 2016; Okeke et al., 2016; Solesvik et al., 2014). 한편 이러한 창업의지는 국가별 혹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Jiang & Wang(2014)의 연구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창업의지가 더 큰 반면, 창업의지에 따른 기대치는 중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큰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의지에 따른 기대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Seet & Seet(2006)는 싱가포르 대학생들의 체험학습형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인식과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연구하였지만 실패에 대한 인내와 기회 인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이 창업역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결론은 얻지 못했음을 밝혔다.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성향에 따라서 창업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성(스스로의 통제가 가능), 우연에 의한 통제성(자신이 아닌 우연에 의하여 통제됨),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에서 높게 나왔다(최옥희 외, 2017). 하지만 반대로 우연에 의한 통제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이정원 외, 2013)가 있기도 하다. 한편, Vuković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가적 태도, 내적통제성, 주관적 규범의 순서대로 나타났지만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증명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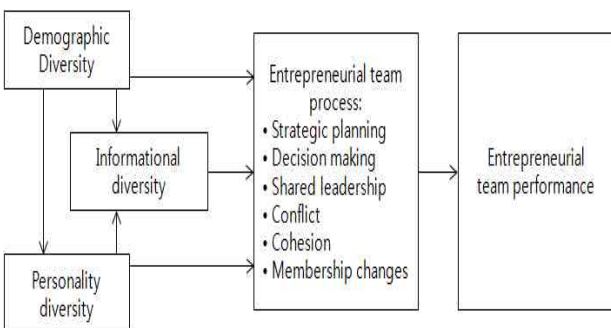
을 밝히고 있다.

심완섭·이은재(2015)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15편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밝힌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으로써 창업자의 창업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본질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 및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의 중요한 조절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의 창업의지가 이어지는 팀 구성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함께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팀 활동의 유효성 및 전체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1.2 팀 구성원의 다양성

다양성은 획일성의 반대말으로써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진 특성’을 말한다. Mor Barak(2014)은 그의 저서에서 다양성을 눈에 보이는 다양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다양성은 “인종, 성, 연령, 신체적 장애와 같이 관찰 가능하거나 쉽게 감지 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성은 “종교, 교육, 가치관, 태도, 전문성, 조직에서의 신분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특성”을 말한다. Zhou & Rosini(2015)는 31개 창업 팀의 실증연구와 조직행동의 투입-매개-산출 IMO(Inputs-Mediators-Outcomes) 프레임워크(Mathieu et al., 2008)를 토대로 창업 팀의 다양성에 관한 통합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모델은 인구통계 및 개인특성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정보의 다양성이 창업 팀의 창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창업 팀의 성과로 이어지는 ‘창업 팀 개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창업 팀 다양성 통합모형

Ochani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실전 창업 팀에 있어서 팀원 간 대인관계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높은 팀은 낮은 연령대(평균 42세 이하), 높은 교육수준(16.3년), 서로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보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 멤버들은 더 날카로운 학습, 추론 능력 및 팀 유연성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것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복잡한 상황을 다룰 작업 단위와 사람들 간에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그룹의 경우는 인지적 능력이나 상호작용 스타일에 있어서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Zh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성, 대학 유형, 학력 및 전공에 따라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실전 창업 팀에 있어서 팀의 성향이 과업중심인지 혹은 관계중심인지에 따라서는 다양성의 효과는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 Zhou et al.(2015)은 과업중심 성향이 높은 팀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 창업 팀이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며 반대로 과업중심 성향이 낮은 팀이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는 창업 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연구되었다. 아울러 관계중심 팀의 경우에는 그 수준에 관계없이 다양성이 창업 팀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연구되었다. 최중석·성상현(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대학졸업 이상자의 경우에 서비스업을 선호하였으며 창업성향 발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서비스업보다는 인터넷사업, 유통업 또는 외식업을 더 선호하였고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사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재학 이하에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외식 및 유통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운 외(2017)는 기존 연구들이 성별, 연령, 전문분야, 창업 전 경험과 같은 ‘표면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창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이라는 ‘신생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동 창업 팀을 잘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창업자들의 경험적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성에 관한 8가지의 중요한 개인 요인(외향성, 의견 수용, 위험 감수, 낙관주의)과 업무 요인(업무 관련 의견, 속도 중시, 큰 그림 중시, 시간관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낙관주의와 속도 중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장선영·이정주(2015)는 ‘대학에서의 팀 기반 학습을 위한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개발초기 학습자를 분석하고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팀 내 구성원은 서로 지인관계에 있는 팀원끼리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팀 간에는 수준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반기업의 팀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항상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개인관련 다양성은 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업관련 다양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문주·윤정구(2011)는 다양성이 팀 내 성과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렴 메커니즘을 통하여 충분한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양성은 상황에 맞추어 부정적인 효과는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잠재력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고중식(2016)은 팀 내 개인 다양성과 팀 학습행위와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은 부(-)의 관계가, 과업 다양성과 팀 학습행위와의 관계에서 기능적 배경과 교육 및 근무연수적 배경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또한 상호의존성의 조절 및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목표상호의존성(목표 공유 및 피드백)이 업무상호의존성(자료 혹은 정보 교환)에 비해 조절효과가 높으며, 목표상호의존성과 업무상호의존성 모두 개인 다양성에 비해 과업 다양성의 조절 및 상호작용 효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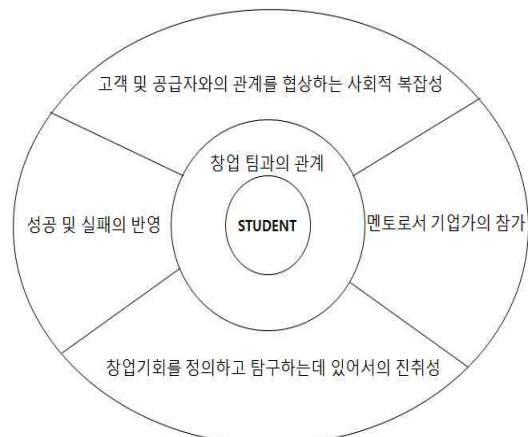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창업교육 팀, 실전 창업 팀 그리고 일반 기업 업무 팀에 있어서 자주 연구되고 있는 팀 다양성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팀 활동의 유효성 및 전체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1.3 팀 학습 조력자의 지원활동

창업교육에서 지원요소는 교육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코칭,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진단 클리닉, 인턴십, 사업아이디어경진대회 등과 같은 교육 측면의 지원, 기존 창업가 및 창업기관, 동문, 법률 및 회계, 세무, 특허, 경영 등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모의창업 혹은 학교창업 등의 창업실행 지원, 창업 동아리 및 학술행사 등과 같은 연구활동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목영두·최명길, 2012). 창업교육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의, 사례, 사업 계획 및 초청 연사와 더불어 프레젠테이션, 역할극, 컨설팅과 같은 학습 방법이 창업교육의 중요한 차원으로 통합되고 있다(Crispin et al., 2013). 미국의 창업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지원 요소 측면에서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기법, 사례기반 학습 및 토론, 팀 기반 학습,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또는 해당 지역의 기업가 및 전문가 네트워크, 지속적인 멘토링 및 후원 등은 국내 대학에서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최종인·박치관, 2013; 이우진 외, 2013; 김지영 외, 2017). Mandel & Noyes(2016)는 미국에서 체험형 창업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상위 25개의 학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창업교육의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모델에서는 멘토의 참가는 학생들이 창업활동을 맥락화하는 것을 안내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학계와 전문가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리더는 교실 학습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비즈니스 통찰력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Zhou & Xu(2012)

는 중국 대학의 창업교육 발전에 대하여 권고하면서 미국 대학은 다양한 창업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동아리 및 전문가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탐구 기회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창업경연대회, 인턴십과 같은 집중적인 체험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 설명, 아이디어 창출, 시장 분석, 자본 확립, 운영에 대한 관리 및 회계 절차 준수와 같은 기술 습득 위주로 운영됨을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창업동아리, 외부연사, 워크샵 및 세미나, 창업경연대회, 인턴십 및 벤처 인큐베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2> 체험형 창업교육의 모델

박철우(2017)는 ‘대학의 창업교육·지원활동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대학들이 정부지원금, 대학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정량적 성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창업전문 멘토링을 확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졌지만,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학생들에게 창업의 활성화를 불러 넣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실무교육과 실전경험지원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Maritz & Brown(2013)은 팀 학습의 조력자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팀과 활동을 조직하는 기술을 가진 조력자가 없다면 창업활동은 구조화되지 않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창업과정을 거쳐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 보고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청중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자기중심적인 조력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선진형 혹은 체험형 창업교육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조력자의 지원이 앞에서 언급한 창업의지, 팀 다양성과 함께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팀 활동의 유효성 및 전체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2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

상기의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개인

의 창업의지, 팀 구성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설 및 연구모형을 수립해 보고자한다.

### 2.2.1 팀 학습 유효성

팀 학습의 성과는 팀 과제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의 보유정도, 팀 작업의 역동성이나 원활한 의사소통, 적절한 작업지원 환경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Johnson et al.(2011)은 공유정신모형(Shared Mental Model)을 통하여 학부생의 팀 학습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추적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과제와 팀 지식(TTK)’, ‘과제와 의사소통 기술(TCS)’, ‘팀과 작업에 대한 태도(ATT)’, ‘팀 역동성 및 상호작용(TDI)’, ‘자원 및 작업환경(RWE)’의 5가지로 구분하여 팀 학습의 성과 또는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공유정신모형에 의하면 팀 창업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들은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도록 해야 하며 팀원들은 과제해결 과정에서의견 및 사고, 지식이나 정보, 역량 등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유된 지식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의 수준이 높을수록 팀 학습 효과는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명남(2013)은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팀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유정신모형 척도 타당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팀 공유정신모형 척도는 상기와 같이 5개의 하위 요인으로 판명되었으며 모형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유효성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수렴 타당도도 양호하였으며, 팀 공유정신모형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준거 관련 타당도도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팀 공유정신모형 척도가 한국의 고등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권숙진(2013)은 팀 기반 학습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육 만족도 확인이나 개인 수준의 지식 습득 및 활용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유정신모형의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조화된 패스파인더(짜지어진 개념간의 관련성을 그래픽형태로 측정하는 도구) 형태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강명희·윤성혜(2015)는 협력적 지식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효능감, 신뢰, 지식공유 의도와 지식공유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학습에서 지식공유 행동은 자기효능감보다는 신뢰와 지식공유 의도가 보다 유효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따라서 팀 학습에서 지식공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지식공유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세경·강정애(2013)의 연구에서는 팀원의 커뮤니케이션 참여가 팀 공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팀 공유감은 팀 학습 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참여와 팀 학습 유효

성의 관계는 팀 공유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은숙(2010)은 ‘팀 기반 학습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협력활동을 통한 학습자간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 문제해결 중심의 개별학습과 집단학습을 동시에 시행하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협력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상호 간 존중, 나눔, 인내의 섬김 실천, 이질적인 팀 구성 및 팀 과제를 위한 역할 제공과 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여 팀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팀 학습에 있어서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은 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성욱·이건창(2015)은 창의적 사고는 활용(정보의 연관, 종합, 변형, 유추, 전이의 과정)과 탐색(사고활동을 통한 아이디어의 정교화, 구체화, 체계화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팀원의 탐색 및 활용 활동은 개인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팀 다양성 역시 개인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에서 팀 다양성은 관계중심일 경우보다는 과업중심일 경우에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왔음을 연구하였다. 한편 박희진(2011)은 팀 학습 행동이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17개 연구들을 통합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팀 학습 행동과 팀 수행 또는 팀 혁신은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팀 크기, 팀 유형, 및 연구 장면이 팀 학습 행동과 팀 수행 관계를 조절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즉, 중간 혹은 큰 팀보다 작은 팀에서, 비 프로젝트 팀보다 프로젝트 팀에서, 현장 장면보다 학교 장면에서 팀 학습 행동과 팀 수행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부분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창업의지’, ‘팀원의 다양성’, 그리고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이상에서 고찰한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가설1. 개인의 창업의지는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팀원의 다양성(인구통계를 중심으로)은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2 창업교육 만족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으로 Kirkpatrick & Kirkpatrick(2009)의 4단계 수준별 교육평가모델이 일반기업의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중석·성상현(2016)은 이들의 모델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평가도구로 참고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제1단계 수준인 반응(Reaction)평가는 교육 후에 학습자가 교육내용이나 강사, 교육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제2단계 수준인 학습(Learning)평가는 교육에 대한 학습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보통 학습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 향상도를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창업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실전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 아울러 창업이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rkpatrick & Kirkpatrick(2009)은 이에 대하여 3단계 및 4단계 평가를 통하여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제3단계 수준인 행동(Behavior)평가는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서 행동으로 얼마나 적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 후 3개월 이상 등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관찰법 혹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제4단계 수준인 결과(Result)평가는 교육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를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회수법)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제1, 2단계 평가는 비교적 적용하기가 용이하지만 제3, 4단계 평가는 사후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곽동신 외(2016)의 연구에서는 교육만족도에 대하여 소비자인 학생들이 제공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관한 개념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였는데 교육내용이 창업에 도움 정도, 활용가능성, 심리적·물리적 성장, 자신감 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로 파악하였다.

김문성·이준우(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만족도에 대하여 ‘아이디어 도출교육 만족도’, ‘정보수집교육 만족도’, ‘사업화전략 실행교육 만족도’의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내용별 만족도를 평가하고 창업의지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도출교육 만족도와 사업화전략 수립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자 역량(창의적 역량, 기술적 역량, 시장감지 역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의적 역량은 정보수집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기술적 역량은 아이디어 도출교육 만족도와 정보수집교육 만족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지 역량은 정보수집교육 만족도와 사업화전략 실행교육 만족도에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발생하였다.

조영준(2017)은 ‘대학창업의 교육서비스 품질(유형성, 공감성, 차별성)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유형성, 공감성, 차별성이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 만족도는 공감성, 차별성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nstein & Carayannis(2012)는 창업효능감과 교육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만족도는 창

업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연구하였다.

Akin & Demirel(2015)은 학생들이 창업교육의 결과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자기 사업을 시작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Hytti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내재적(학습, 도전 등 스스로) 동기부여는 창업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칭찬, 보상 등의)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팀의 자원은 내재적 동기부여와 성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외(2012)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팀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팀 효능감과 메타인지(학습 전 과정을 계획, 점검, 조절하는 능력)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팀 효능감은 학습성과 중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는 학습성과 중에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효능감은 학습성과 중에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부분의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개인의 창업의지’, ‘팀원의 다양성’, 그리고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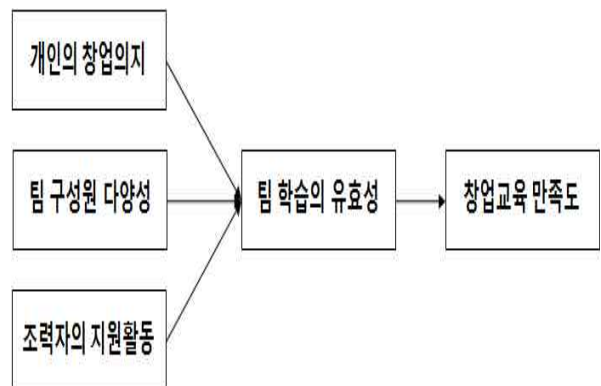
**가설4. 팀 학습의 유효성은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팀 학습의 유효성은 개인의 창업의지와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6. 팀 학습의 유효성은 팀원의 다양성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 팀 학습의 유효성은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모형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K대학의 벤처창업 자율전공에 개설된 2017년 1학기 창업교과목 중에서 팀을 구성하여 실습 및 문제해결과제를 진행한 3개의 창업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담당교수는 모두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거나 혹은 현재 교수창업을 운영 중인 교수로서 교내·외의 다양한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및 외부의 일반창업자 교육기관에서 멘토링 및 컨설팅,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설된 3개의 교과목은 ‘창업자금조달과 관리’, ‘창업실습’, ‘창업사업계획서작성’ 과목으로써 팀별 과제는 각각 ‘창업 아이디어도출과 자금조달계획 수립 및 발표’, ‘창업 아이디어도출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창업 아이디어도출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었으며 창업 팀의 구성은 각각 2주차 혹은 3주차에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팀 학습 및 과제제출, 발표는 14주차 혹은 15주차까지 진행되었다. 수업은 강의식 교육과 과제해결을 위한 실습식 팀 학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모두 15주차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해당 강의실을 방문하여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총 18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중에서 팀 명칭을 누락했거나 팀에 참여할 수 없었던 취업자 등 31부를 제외하고 총 149명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성은 94명, 여성은 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학년은 49명, 2학년은 46명, 3학년은 22명, 4학년은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은 복지융합대학 16명, 경영관리대학 59명, 글로벌인재대학 6명, ICT건설융합 38명, 사범대학 2명, KNU참인재대학 3명, 기타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세 미만 5명, 20~24세 이하 101명, 25~29세 이하 42명, 30세 이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된 팀은 총 37개 팀이었으며, 9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은 1팀, 7~8명으로 구성된 팀은 18팀, 5~6명으로 구성된 팀은 11팀, 3~4명으로 구성된 팀이 7팀으로 팀 평균 6.2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전체 설문지 응답률은 팀 평균 4.9명이 응답하여 약 79%의 응답률(팀명을 기입한 유효 설문지 기준 64%)을 보였다. 팀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6명 이하 팀과 7명 이상의 팀으로 구분하여 각각 0과 1로 크기를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지만 주로 온라인 사업 혹은 오프라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사업방식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한 팀에서 다수의 창업아이디어를 팀 과제로 선정하고 학습을 진행한 팀이 약간 수 존재하여 이런 팀의 경우는 실습 시 가장 많이 다루었거나 설문지에 비중을 높게 기재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팀은

14팀, 오프라인 사업팀은 23개 팀으로 구분되었으며 온라인 사업은 0, 오프라인 사업은 1로 코딩하였다.

#### 3.2 변수의 측정

성별, 전공, 연령, 학년, 팀 규모, 창업업종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리커트식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지 않다’는 ‘2’, ‘보통이다’는 ‘3’, ‘그렇다’는 ‘4’, ‘매우 그렇다’는 ‘5’에 체크하도록 측정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작성의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고려하려고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변수들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려고 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 3.2.1 개인의 창업의지

개인의 창업의지는 미래에 자기사업을 하겠다는 경향 또는 선호도를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 후 두려움 해소, 도전의식 증가, 창업의지 고취, 성공창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창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 창업에 대한 의사(곽동신 외, 2016)” 혹은 “창업관련 활동건수, 창업에 대한 관심, 창업의도(이재훈, 2013)”등으로 창업의지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측정내용을 참고하고 수업 및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졸업 후 창업고려, 창업에 대한 호기심,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 본 경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여부를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3.2.2 팀 구성원의 다양성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팀 다양성은 인구통계와 같이 가시적인 다양성과 가치관 혹은 조직의 문화적 특성처럼 비가시적인 다양성으로 구분되고 있다. 노연희·손영우(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및 인지 다양성을 토대로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을 다양성 변수로 측정하여 연구하였다. Zh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성, 대학 유형, 학력 및 전공을 다양성의 변수로 측정하여 창업교육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다양성 변수를 참고하고 수업 및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 학년, 연령, 성”을 다양성의 변수로 선정하여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여 “우리 팀은 전공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우리 팀은 성별이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었다.” 등의 문항으로 만들어 ‘팀원이 인식하고 있는 팀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 3.2.3 팀 학습 조력자의 지원활동

창업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요소는 실습, 발표 및 컨설팅, 멘토링 상담, 진단 클리닉과 같은 교육방법적 지원요소, 전문가, 기업가, 동문, 창업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요소, 학생창업 등과 같은 창업실행 지원요소, 창업 동아리 및

세미나와 같은 연구활동 지원요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목영두·최명길, 2012). 본 연구에서는 박철우(2017) 및 Maritz & Brown(2013)의 연구와 Mandel & Noyes(2016)의 체험형 창업교육 모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가 멘토링을 중심으로 수업의 특성과 창업교과목 담당교수의 배경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구성은 “팀 운영에 대한 목적, 방법, 시간관리 공지, 팀 과제를 위한 양식이나 도구 제공, 적절한 질문과 답변, 적절한 멘토링 진행, 교수의 전반적인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3.2.4 팀 학습 유효성

Johnson et al.(2011)은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팀 과제 기술이나 지식 보유, 팀 작업의 역동성이나 원활한 의사소통, 적절한 작업지원환경” 등에 대한 공유정신모형을 통하여 팀 학습의 성과 혹은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전명남(2013)도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39개의 공유정신모형 문항의 척도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권숙진(2013)은 더 나아가 공유정신모형의 척도를 분석하여 보다 구조적으로 쌍으로 연결된 그래프적도인 패스파인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채성욱·이건창(2015)의 연구에서는 팀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창의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세경·강정애(2013)는 팀 공유감 및 팀 학습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변수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학습 유효성에 대하여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고찰한 공유정신모형을 토대로 “팀 학습 유효성은 팀 구성원이 주어진 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내·외부 자원을 동원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팀워크를 높이고 팀 학습 과정에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명남(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공유정신모형의 문항들과 채성욱·이건창(2015) 및 최세경·강정애(2013)의 연구를 토대로 수업 및 학생의 특성과 설문지 응답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팀 활동에 적극적 참여, 과제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팀원 간의 의사소통, 전반적으로 팀워크가 좋음, 팀 학습에 만족”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3.2.5 창업교육 만족도

이재훈(2013)은 창업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 측정에서 “수강만족도, 강의내용 만족도, 창업행사 만족도, 행사내용 만족도” 등을 측정하였고 Parcell & Sykuta(2005)는 “사업계획, 사업타당성, 법률지식, 제품개발, 가격전략” 등의 기능적 측면의 이해도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 일정기간 안에 안정적 사업구축, 인터넷에 흥미” 등과 같은 실전 창업 준비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Kirkpatrick & Kirkpatrick(2009)는 교육과정의 4단계 평가방법으로 반응평가, 학습평가, 활동평가, 성과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중석·성상현(2016)은 이

를 기업가 교육과정의 평가 틀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본 4단계 평가방법 중에서 3단계까지의 내용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하지만 2단계 및 3단계의 경우는 실제로 학습 향상에 관한 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하거나 교과목 이수 후에 활동의 변화 정도를 추적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답변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의 내용 및 강의를 만족함, 본 교육을 통하여 창업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 실제 창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임, 전반적으로 본 교육의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함”으로 측정하였다.

### 3.2.6 통제변수

팀 학습을 중심으로 연구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 변수는 팀 다양성이라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팀의 규모(구성원 수)와 팀의 사업형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각각 소규모 및 중규모, 온라인 사업 및 오프라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 IV. 연구결과

### 4.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5가지 변수인 창업의지, 팀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 팀 학습 유효성, 창업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내적일관성 측정지표인 Cronbach 알파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개인의 창업의지는 .913, 팀 다양성 .753,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909, 팀 학습 유효성은 .897, 창업교육 만족도는 .903으로 나타나서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의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의 창업의지 5문항, 팀 다양성 4문항, 조력자의 지원활동 5문항, 팀 학습 유효성 6문항, 창업교육 만족도 5문항 등 총 24문항 중에서 팀 다양성의 성별 다양성을 제외(요인 부하량이 0.5 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함)한 23개 문항에서 5개의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성분					Cronbach's α
		1	2	3	4	5	
팀 학습 유효성	팀원소통	.861	.154	.125	.150	.037	.897
	팀원팀워크	.811	.162	.078	.242	.047	
	팀원역할	.807	-.015	.080	.158	-.096	
	팀원참여도	.792	.028	.124	.105	-.068	
	팀원창의	.774	.024	.252	.055	-.046	
	팀활동만족	.608	.062	.095	.538	.020	
개인의 창업의지	창업전반관심	.089	.875	.194	.119	.039	.913
	창업이유로우수강신청	.083	.865	.181	.161	.045	
	창업고려	-.006	.857	-.025	.024	-.012	



	창업희기심	.109	.842	.186	.082	.020	
	아이템고민	.051	.785	.113	-.015	.030	
조력자의 지원활동	강사질문답변	.105	.082	.889	.185	.083	.909
	강사양식제공	.132	.161	.851	.129	.095	
	강사멘토링	.174	.078	.832	.271	-.109	
	전반적강사지원	.237	.232	.755	.316	-.054	
	강사운영공지	.176	.389	.607	.136	.188	
창업교육 만족도	실제창업도움	.191	.047	.094	.874	-.020	.903
	지식노하우습득	.156	.106	.216	.826	.115	
	전반적교육효과	.167	.082	.283	.823	.024	
	내용강의만족	.213	.110	.283	.773	-.015	
팀 다양성	팀학년다양	.005	.025	-.040	.032	.934	.753
	팀연령다양	-.063	.091	-.059	.093	.889	
	팀전공다양	-.054	-.011	.222	-.046	.774	
KMO측도=0.84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532.622$ , 자유도=253, 유의확률=.000							

총 23개 문항에 대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직교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KMO 측도는 0.843으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카이제곱( $\chi^2$ ) 값이 2532.622(df=253)로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0.6을 상회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 4.2 동일방법편의 검토

아울러 동일 시점에 변수들의 측정을 모두 설문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에 따른 편의(Common Method Variance)에 대하여 연구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Podsakoff et al., 2003). 동일방법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설문의 모호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 작성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설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한편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단일요인검증을 사용하여 오류의 최소화를 검증하고 있다. 이는 사용된 변수 모두에 대하여 비회전 요인행렬 방식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동일방법오류가 있는 경우는 단일요인이 나타나거나, 혹은 단일 요인이 전체 분산의 많은 부분(50% 이상)을 설명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비회전 요인행렬 분석결과, 고유 값이 1 이상인 요인이 5개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33.7%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료의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문제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3 자료합산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팀 다양성, 팀 학습 유효성, 조력자의 지원활동 변수는 팀 구성원의 개별 설문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팀 구성원 간의 응답 일치 여부와 자료합산의 정

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료 합산에 따른 팀 수준의 척도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ICC를 분석하였다(James et al., 1984; Van Mierlo et al., 2009).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ICC(1)은 James(1982)가 조직 수준의 변수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 .12를 모두 상회했고, 검정통계량(F 값)도 모두 유의한 것( $p<.001$ )으로 나타나서 팀원들이 팀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 및 팀 학습 유효성에 대하여 동일한 지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개인자료 합산에 따른 타당성 검증

변수	ICC(1)	ICC(2)	F
팀 다양성	.639	.842	6.311***
조력자의 지원활동	.667	.909	10.997***
팀 학습 유효성	.593	.897	9.729***

\*\*\* $p<.001$

ICC(2)의 경우는 .70 이상이면 팀 수준에서의 자료 합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다(James et al., 1984; Klein & Kozlowski, 2000). 분석결과 팀 다양성은 .842,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909로 나타났고, 팀 학습유효성은 .897로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F 값)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따라서 세 가지 변수 모두 팀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는데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4.4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인 <표 3>을 보면 개인의 창업의지는 조

<표 3> 상관관계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창업의지	3.51	.905	1						
2. 팀 다양성	3.28	.904	-.022	1					
3. 조력자 지원활동	3.98	.372	.252**	.083	1				
4. 팀 학습 유효성	3.81	.504	.089	-.101	.294**	1			
5. 교육 만족도	3.97	.720	.228**	-.062	.230**	.239**	1		
6. 팀 규모	-	-	-.099	.077	-.409**	-.151	-.052	1	
7. 팀 사업형태	-	-	-.109	-.052	.028	.072	.056	-.211**	1

\*\* $p<.001$

력자 지원활동, 교육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팀 학습 유효성, 교육 만족도, 팀 규모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팀 학습 유효성은 교육 만족도와, 팀 규모는 사업형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 4.5 가설검정

개인의 창업의지, 팀원의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 만족도 사이에서 팀 학습 유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설검정

종속변수 모형	팀 학습 유효성			창업교육만족도				
	1	2	3	4	5	6	7	8
팀 규모	-.132 (-1.564)	-.136 (-1.625)	-.023 (-.256)	-.012 (-.1470)	-.009 (1.105)	.080 (.887)	.081 (.912)	.009 (-.106)
사업형태	.053 (.624)	.038 (.457)	.059 (.726)	.079 (.965)	.007 (9.927)	.083 (1.017)	.073 (.904)	.038 (.455)
창업의지	.081 (.982)			.236** (2.886)	.235** (2.867)	.188* (2.277)	.185* (2.266)	
팀 다양성		-.089 (-1.080)			-.052 (-.642)	-.077 (-.964)	-.703 (.483)	
조력자 지원활동			.283** (3.251)			.219* (2.426)	.168+ (1.810)	
팀 학습 유효성							.175* (2.109)	.235** (2.885)
F	1.542	1.611	4.824**	3.027*	2.365+	3.133**	3.415**	3.024*
R2	.031	.032	.091	.059	.062	.099	.126	.059

표준화 계수, ( )안은 t값, +p<.10, \*p<.05, \*\*p<.01, \*\*\*p<.001

개인의 창업 의지 또는 팀 다양성이 팀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는 기각되었다(모형 1, 2). 따라서 팀 유효성이 창업의지 혹은 팀 다양성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5, 6도 지지되지 않는다. 상기의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창업의지는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창업의지가 개인의 창업교육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개인의 창업의지가 팀 학습의 유효성으로 내재되거나 혹은 발전되어 나타나는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창업의지가 분명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가 섞여 있을 경우에 창업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팀 학습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세심한 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팀의 다양성도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팀 다양성은 상황에 따라서 팀 유효성에 긍정적으로도 때론 부정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의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부분에서 보면 팀 다양성 평점은 다른 변수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다양성의 경우에는 편중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팀 학습초기에 수강신청자의 특성 또는 창업관심 분야에 따른 팀 편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3은 모형 3에서 지지되었다(표준화계수=.283,  $p<.01$ ). 또한 팀 유효성은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4도 모형 8에서 지지되었다(표준화계수=.235,  $p<.01$ ). 팀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7도 모형 3과 모형 8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종속변수인 창업교육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조력자의 지원활동은 창업교육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59$ ,  $F=3.017(p<.05)$ , 표준화계수=.255,

$t=2.881(p<.001)$ ). 또한 모형 7에 의하면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팀 학습 유효성이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표준화계수=.175,  $p<.05$ ) 이 과정에서 조력자 지원활동의 유의도가 기존 표준화계수인 .255( $p<.001$ )에서 .168( $p<.10$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팀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조력자 지원활동의 유의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에 의하여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팀 학습 창업교육에 있어서 “팀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공지, 팀 과제 해결을 위한 양식이나 도구의 제공, 적절한 질문과 답변 및 멘토링” 등과 같은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구성원을 통하여 공유되고 이것이 팀 과제의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창의성 발휘, 의사소통, 문제해결, 팀워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창업교육의 내용 및 강의에 대한 만족, 교육을 통한 창업지식 및 노하우 습득, 실제 창업에 있어서 도움,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에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개경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팀 학습을 통한 창업교육이 팀 학습의 유효성 및 창업교육 과정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1학기 국내 K대학의 벤처창업 자율전공에 개설된 창업교과목 중에서 문제해결 과제 중심의 팀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4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팀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창업의지, 팀 다양성, 조력자의 지원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 간의 영향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가지 변수로 선정된 팀 학습 촉진요소 각각이 팀 학습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아울러 팀 학습의 유효성이 이러한 독립변수와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창업의지 또는 팀 다양성이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창업의지가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팀 학습 유효성이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아울러 팀 학습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되었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독립변수인 조력자 지원활동의 유의도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팀 학습 유효

성의 매개경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한다면 먼저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처럼 개인의 창업의지가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팀 학습 유효성은 창업교육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롭게 증명하였다. 아울러 팀 학습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실무적으로는, 개인의 창업의지는 창업교육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팀 학습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창업의지가 분명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가 팀으로 섞여서 작업을 할 경우에 팀 관리의 세심함, 아울러 구성원의 창업의지에 따른 조력자의 지원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팀의 다양성은 팀 학습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 학습초기에 수강신청자의 특성 또는 창업관심분야에 따라서 팀 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선행연구에서도 팀 다양성은 상황에 따라서 팀 유효성에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조력자의 지원활동과 창업교육 만족도 사이에서 팀 학습 유효성이 중요한 매개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팀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공지, 팀 과제 해결을 위한 양식이나 도구의 제공, 조력자의 적절한 질문 및 답변, 조력자의 멘토링”, “팀원의 적극적인 참여, 창의성 발휘, 의사소통, 팀워크 형성, 팀 문제해결”, “창업교육의 내용 및 강의에 대한 만족, 교육을 통한 창업지식 및 노하우 습득, 실제 창업에 있어서 도움,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력자의 지원활동→팀 학습 유효성→창업교육 만족도’ 간의 매개경로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팀 학습 창업교육에 있어서 수강생의 창업의지에 부합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의 운영, 내·외부 전문가 또는 기업가의 교육 네트워킹, 팀원 구성 및 팀 지도의 세심한 배려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창업교육에 있어서 체험형 문제해결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팀 학습의 유효성이 조력자의 지원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다시 팀 학습의 유효성은 창업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문가 멘토링, 사업계획 진단 클리닉, 내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 및 지역의 전문가 혹은 기업가와 함께하여 창업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팀 다양성이 팀 학습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팀 구성 초기에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숙고있는 팀원 구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팀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조력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여전히 개인의 창업의지는 창업교육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창업의지를 가진 개인이 창업교육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타당성을 분석해보고 외부의 전문가 등을 통하여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인 동기부여 형태의 창업과정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 팀 학습 교육과정이 사전에 정교히 구조화되어 개발된 과정이기 보다는 각 교과목 교수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팀을 구성하고 팀 학습을 진행하였다는 점, 아울러 각 교과목의 팀원 구성도 수강신청 이전에 구조화되지 못하고 수강신청 이후에 구성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수강신청 시스템의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창업교육의 진정한 성과는 교육 수료 이후에 실제 창업과정 혹은 사업 실행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여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사전에 팀 학습 창업교육과정을 보다 정교히 개발하여 팀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창업교육 수료 이후를 추적하여 실제 창업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창업교육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REFERENCE

- 강명희·강민정·윤성혜(2016). 팀 기반 학습성과에 대한 다양성수용도, 학습정서, 사회실재감의 예측력 검증, *교육문화연구*, 22(6), 5-32.
- 강명희·윤성혜(2015).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 지식공유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뢰, 지식공유 의도의 예측력, *학습과학연구*, 9(3), 22-46
- 곽동진·정화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37-48.
- 고종식(2016). 팀 다양성의 영향력과 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9(8), 1343-1365.
- 권숙진(2013). 팀 기반 학습에서 공유혁신모형의 구조적 측정 방법 고찰, *학습과학연구*, 7(2), 94-111.
- 김문성·이준우(2017). TEC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역량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2(1), 310-334.
- 김문주·윤정규(2011). 팀 다양성 수렴 메커니즘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영학연구*, 40(1), 97-137.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김지영·성창수·박주연(2017). 대학 창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교육에 대한 고찰: 해외의 교육정책 및 사례분석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12(2), 65-76.
- 노연희·손영우(2012). 팀의 구성이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인지다양성 및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 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861-887.
-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교육 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박은숙(2010). 팀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팀기반학습의 대학수업에서의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27, 171-199.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 박철우(2017). 대학의 창업교육·지원활동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1), 68-89.
- 박희진(2011). 팀 학습 행동과 팀 수행의 관계: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3), 651-672.
- 심완섭·이은재(2015). 대학생의 온·오프라인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술지 등재지 및 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6(4), 371-396
- 이우진·김용태·황보윤(2013).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미국 5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1), 99-110.
- 이우진·황보윤(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창업교육의 특징 분석과 미래 발전방안, *벤처창업연구*, 10(3), 171-183.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재윤·오수진·김명연(2017). 누구와 창업할 것인가?: 스타트업 공동창업팀 내 심층적 다양성의 필요영역,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1), 49-76.
-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 이정민·윤성혜·류혜선(2012). 문제중심학습 성과에 대한 팀효능감, 메타인지의 예측력 규명, *아시아교육연구*, 13(1), 105-123.
- 이정원·이애주·김남현(2013).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개인적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25(2), 267-286.
- 이현경·이일환(2016).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111-120.
- 장선영·이정주(2015).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개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71-302.
- 전명남(2013). 학습 팀을 활용한 대학 수업에서 팀 공유정신모형 적도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4), 935-960.
- 정경희·성창수(2016).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1(4), 49-57.
- 조영준(2017). 대학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창업교육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벤처창업연구*, 12(2), 95-103.
- 조준희·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중소기업청(2013). *미국 대학생 창업인프라 심층조사*, 글로벌오픈과 트너스.
- 채성욱·이건창(2015). 팀다양성이 팀구성원의 개인창의성과 탐색, 활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수준 분석 접근 방법,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1), 77-88.
- 최옥희·박중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35-50.
- 최세경·강정애(2013). 커뮤니케이션, 팀 공유감과 팀 학습유효성, *대한경영학회지*, 26(2), 311-332.
- 최종인·박치관(2013).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8(3), 85-96.
- 최중석·성상현(2015).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성향 발달도 및 창업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1-13.
- 최중석·성상현(2016). 사회적기업가 역량 모델링 및 교육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경영전략 AFI Framework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4(2), 83-116.
- 한정희·김정호(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777-2797.
- Akin, H. B., & Demirel, Y.(2015).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rception Change: The Preliminary Outcomes of Compulsory Entrepreneurship Course Experience in Turkey, *Selcuk U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usu Dergisi*, 34, 15-2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nstein, A. T., & Carayannis, E. G.(2012). Exploring the Value Proposition of the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 Major and Elective Based on Student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 Knowl Econ*, 3, 265-279.
- Chae, S. W., & Lee, K. C.(2015). Multilevel Analysis Approach to Analyzing the Effects of team Diversity on Team Members' Individual Creativity and Creative Activities such as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1), 77-88.
- Choi, J. I., & Park, C. G.(2013).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versity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85-96.
- Choi, J. S., & Sung, S. H.(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Candidates, their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oice of Business Fiel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13.
- Choi, J. S., & Sung, S. H.(2016). A Study on Competency Modeling and Establishment of Training System of Social Entrepreneurs: Focusing on the Competency Factors of AFI Framework of Management Strategy, *Korea Cooperative Research*, 34(2), 83-116.
- Choi, S. K., & Kang, J. A.(2013). Communication, Shared Team Ident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2), 311-332.
- Choi, W. H., Park, J. H., & Kim, N. H.(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a Universitys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Cho, J. H., & Kim, C. J.(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Crispin, S., McAuley, A., Dibben, M., Hoell, R. C., & Miles, M. P.(2013). To Teach or Try: A Continuum of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ustralasia, *Americ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Columbus, 6(2), 94-109.
- Han, J. H., & Kim, J. H.(2013). 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6), 2777-2797.
- Hytti, U., Stenholm, P., Heinonen, J., & Seikkula-Leino, J.(2010). Perceived Learning Outcom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Impact of Student Motivation and Team Behaviour, *Education & Training*, 52(8/9), 587-606.
- Ibrahim, O. A., Devesh, S., & Ubaidullah, V.(2017). Implication of Attitude of Graduate Students in Oman towards Entrepreneurship: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7(8), 1-17.
- James, L. R.(1982). Aggregation bias in Estimates of Perceptual Agre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219-229.
- James, L. R., Demaree, R. G., & Wolf, G.(1984). Estimating Within-group Interrater Reliability with and without Response Bia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1), 85-98.
- Jang, S. Y., & Lee, J. J.(2015). Development of a Team-Based Learning Design Model in Higher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1), 271-302.
- Jiang, Z., & Wang, Z.(2014).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Outcome Expectancy: Evidence from South Korea and China, *Contemporary Management Research*, 10(3), 251-270.
- Johnson, T. E., Top, E., & Yukselturk, E.(2011). Team shared Mental Model as a Contributing Factor to Team Performance and Students' Course Satisfaction in Blended Cours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 2330-2338.
- Jo, Y. J.(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cused on the 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ial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95-103.
- Jung, K. H., & Sung, C. S.(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49-57.
- Jun, M. N.(2013). A Validation Study of the Team Shared Mental Model Scale utilizing Learning Team in the College Classroo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4), 935-960.
- Kang, M. H., Kang, M. J., & Yoon, S. H.(2016). The Predictive Power of Openness to Diversity, Academic Emotions and Social Presence on the Learning Outcomes of Team-Bas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5-32.
- Kang, M. H., & Yoon, S. H.(2015). The Predictive Power of Self-efficacy, Trust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n the Knowledge Sharing Behavior of Team Project Learning,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9(3), 22-46.
- Klein, K. J., & Kozlowski, S. W. J.(2000). *Multilevel Theory, Research, and Methods in Organizations: Foundations, Extensions and New Directions*, Jossey-Bass publishes, USA: San Francisco.
- Kim, J. Y., Sung, C. S., & Park, J. Y.(2017). A Study on the Creative Problem-Solving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Leading Countries' Educational Policies and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65-76.
- Kim, M. J., & Yoon, J. K.(2011). The Synergistic Effects of Team Diversity and Convergence Mechanism on Team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0(1), 97-137.
- Kim, M. S., & Lee, J. W.(2017). The Effects of TEC Education's Satisfac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 Competence, *Journal of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1), 310-334.
- Kim, Y. T.(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3-20.
- Kirkpatrick, D. L., & Kirkpatrick, J. D.(2009).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Berrett-Koehler Publishers, USA: California.
- Koe, W. L.(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IEO)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6, 1-13.
- Ko, J. S.(2016). The Modification Effects of Interdependence and Influence of Team Diversit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8), 1343-1365.
- Kwak, D. S., Jung, H. Y., & Kim, M. S.(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37-48.
- Kwon, S. J.(2013).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Knowledge Structure Measurement in Team Bas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7(2), 94-111.
- Lee, H. K., & Lee, I. H.(2016). The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111-120.
- Lee, J. H.(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Lee, J. M., Yoon, S. H., & You, H. S.(2012). Identifying Predictability of Team Efficacy, Metacognition on

- PBL(Problem-Based Learning) Outcom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1), 105-123.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W., Lee, A. J., & Kim, N. H.(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cultural Background: The Case of Tourism and Hospitality Students,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5(2), 267-286.
- Lee, J. Y., Oh, S. J., & Kim, M. U.(2017). Whom should You Start a Company with?: Exploring the Component of Deep-level Diversity in Start-up Co-founding Team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0(1), 49-76.
- Lee, W. J., & HwangBo, Y.(2015). The Chronology of Kore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eature Analysis and Futur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171-183.
- Lee, W. J., Kim, Y. T., & HwangBo, Y.(2013). A Study on the Featur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verseas Universities: Case of F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99-110.
- Lanero, A., Vázquez, J. L., Gutiérrez, P., & García, M. P.(2011).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an Universities: an Intention-based Approach Analyzed in the Spanish Area, *Int Rev Public Nonprofit Mark*, 8, 111-130.
- Mandel, R., & Noyes, E.(2016). Survey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ferings among Top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 Programs, *Education & Training*, 58(2), 164-178.
- Maritz, A., & Brown, C. R.(2013). Illuminating the Black Box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 Training*, 55(3), 234-252.
- Mathieu, J., Maynard, M. T., Rapp, T., & Gilson, L.(2008). Team Effectiveness 1997-2007: A Review of Recent Advancements and a Glimpse into the Future, *Journal of Management*, 34, 41-76.
- Mok, Y. D., & Choi, M. G.(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5(2), 833-857.
- Mor Barak, M.(2014). *Managing Diversity*, 3rd, SAGE Publications, USA: California.
- Newbold, K. F. Jr., & Erwin, T. D.(2014). The Education of Entrepreneurs: A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Fall 2014 Special Issue, 141-178.
- Ochani, M., Chowdhury, S., & Ponthieu, L.(200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Consider for Teaming up an Effective High-tech Entrepreneurial Firm: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14(1), 17-36.
- Okeke, M. N., Okonkwo, G. I., & Oboreh, J. C.(201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Catalyst for Entrepreneurial Inclination in Selected Universities in the South-east Zone, *Arabi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Review(OMAN Chapter)*, 5(11), 13-21.
- Parcell, J., & Sykuta, M.(2005). Undergraduate Perceptions of the Need for an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Curriculum, *NACTA Journal*, 49(1), 1-26.
- Park, C. W.(2017). A Study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izCool) Assistan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1), 68-89.
- Park, E. S.(2010). Applying Team Based Learning in College Course for Enhancing Team Communi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171-199.
- Park, H. J.(2011). The Relationship of Team Learning Behavior to Team Performance: Meta-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3), 651-672.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Roh, Y. H., & Soh, Y. W.(2012).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Cognitive Diversity and Personality Factors on Team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5(4), 861-887.
- Seet, P. S., & Seet, L. C.(2006). Changing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Developing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through Experiential Learning: Evidence from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ingapore's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II(2), 1-31.
- Shim, W. S., & Lee, E. J.(2015).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Online and Offline Environments Mainly with Researches Carried on Academic Journals and Papers, *The e-Business Studies*, 16(4), 371-39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3). *In-depth Investigation of US University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Global Open Partners.
- Solesvik, M., Westhead, P., & Matlay, H.(2014). Cultur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 Training*, 56(8/9), 680-696.
- Solomon, G. T., & May, K.(2014). Revisiting the Stat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ICSB)*, World

- Conference Proceedings, 1-4.
- Van Mierlo, H., Vermunt, J. K., & Rutte, C. G.(2009). Composing Group-level Constructs from Individual-level Survey Data,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2(2), 368-392.
- Vuković, K., Kedmenec, I., & Korent, D.(2015). The Impact of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 Entrepreneurial Intentions, *Croatian Journal of Education*, 17(4), 1009-1036.
- Zhang, Y., Duysters, G., & Cloudt, M.(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redictor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 Entrep Manag J*, 10, 623-641.
- Zhou, M., & Xu, H.(2012). A Review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China, *Administrative Sciences*, 2, 82-98.
- Zhou, W., & Rosini, E.(2015). Entrepreneurial Team Diversity and Performance: Toward an Integrated Model, *Entrep. Res. J.*, 5(1), 31-60.
- Zhou, W., Hu, H., & Zey, M.(2015). Team Composition of New Venture Founding Teams: Does Personalit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1(5), 673-689.

# A Study about the Effect of Team Members' Entrepreneurial Intention, Diversity, and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on Team Learning Effectivenes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i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eam Learning

Choi, Joong Seo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team learning positively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curriculum. To do this, we analyzed the questionnaire data of 149 students who took the entrepreneurship course that was conducted by the team learning method focused on problem solving task among the entrepreneurship courses opened in the venture autonomous major. First, we examined the effect of team learning effe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satisfact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by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diversity of team members, and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and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mediates between these independent variables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will influence team learning effectivenes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or team diversity influences team learning effectiveness was rejecte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was found to be influential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was mediating between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decreased remarkably. This suggests that the mediating path tha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very meaningful thr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although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re partially media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are important in the team learn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is also important. Especially, supporting activities of assistants were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the effectiveness of team learning.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essential to designing a practical education course that meets individual's intention for startup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network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or entrepreneurs. In addition,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more thoughtfulness about the composition of team members in the team learning, and to provide more meticulous suppor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team learning.

*Keywords: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eam diversity, Team learning, Educational satisfaction*

---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Kangnam University, cjs@kangnam.ac.kr